세종시 수정안 종교계도 반발

성명서 내고 세종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할 것 촉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1월 11일 이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계가 성명을 내고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지역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은 1월 15일 청주 수동성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20일에는 '충북 종교인,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서에서 "세종시 수정안에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주변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계획된 세종시가 결국 토지 헐값 매각과 대기업 특혜로 지방과 주변지역의 기업과 자원을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1월 11일 청주 수동성당에서 열린 충북종교지도자 성명서 발표 모습.

종교지도자들은 "세종시 문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쌍방향 소통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정부는 지역민을 이해와 설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2002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수도이전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안이 노 前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를 충청권의 표를 얻는데 이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안대로 갈 줄 알았던 세종시가 문제화 돼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이다. 뇌관을 터뜨린 것은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때 입각한 정 총리는 총리후보 시절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 가시화 됐고 민심의 반발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삼성 등 등 교육?과학?산업 각 분야의 기관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함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은 종교편향 등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골을 새기고 있다. 야당과 여권 일부, 시민단체에 이어 충북지역 종교지도자까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지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선주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1000개 우물에 넘치는 생명사랑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우물 기증, 생명공양 뜻 새겨

일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라는 1월의 캄보디아는 30도가 넘는 태양열로 인해 물이 점차 말라가는 건기의 한 중간이다. 건기가 시작 된 지는 두 달 남짓, 아직까지는 물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식수로 쓰기에 적합한 깨끗한 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 정도이다.

캄보디아의 농촌 마을은 집집마다 입구에 물웅덩이를 파놓는 게 특징이다.

이 웅덩이에 우기에는 물이 차고, 건기면 물이 마른다. 이 물은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캄보디아 농촌 주민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웅덩이지만, 이 물은 주민들에게 식수로 이용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식수를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물고기도 잡히고, 아이들과, 오리, 돼지 같은 가축들의 물놀이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보니 캄보디아의 농촌에는 물로 인한 전염병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11일 오전,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 스님)가 주관하는 우물 지원 사업이 한 획을 긋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프놈펜 남쪽 따께우주와 깜폿주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앙꼬르쩨이 마을의 찌아심 앙코르쩨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지역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1000번째 우물의 기증식이 그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이 사업의 후원자들인 월주 큰스님,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 일화 스님(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종후 스님(북한산 노적사 주지), 일감 스님(금산사 수련원장), 혜진 스님(지구촌공생회 해외사업단장) 등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 탤런트 전원주, 선우용녀(이상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씨, 소설가 남지심씨 등 30여 명이 함께 하고, 쩨아 소파라 농촌개발부 장관과 스레이 벤 따께오 주지사, 코이 쿤 후오 깜폿 주지사, 이경수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김병관 KOICA소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까지 지구촌공생회는 2005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따께우주에 485곳, 깜폿주에 515곳의 우물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기증했으며, 크나이 공생초등학교, 따 띠엔 영화초등학교, 앙코르쩨이 공생유치원, 끄랑야으 공생유치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 사업에도 헌신해왔다.

기념사에서 월주 스님은 "고통 받는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 2005년부터 식수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캄보디아에서의 1000번째 우물기증식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길러주고 있다.

올해 1000여 기에 이르렀다. 지구촌공생회 임직원, 자원봉사자, 현지 활동가, 홍보대사, 후원자들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러한 생명의 우물 사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를 바란다"며 "오늘날의 지구촌은 인류 공동체로서 이웃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아서 이를 섭수하고 나누는 동체대비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대사는 "한국 정부는 농촌개발프로젝트로 캄보디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고, 학교, 의료, 보건 개선 등에서 민간과 손을 잡고 성공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쩨아 소파라 농촌개발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해서 월주 큰스님과 전근수 지구촌공생회 지부장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지구촌공생회와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1000번째 우물의 기증식으로 끝을 맺었는데, 우물에는 1000번째 기증자인 송명례(72)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져서, 생명 공양의 아름다운 뜻을 기렸다.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네팔과 아프리카의 케냐 등 7개국에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사제공=장연수(캄보디아왕국 승왕 보좌관)

템플스테이 관광사업 계획

충남, '대충청방문의 해' 맞아 발표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사찰 템플스테이를 연계한 관광사업을 펼친다"고 1월 11일 발표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템플스테이 특별이벤트 사업의 하나로 천안 공주 서산 논산 예산 등 5개 시군에 각 2000만 원씩 1억 원의 관광 상품 개발 사업비를 투입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원(+1)' 사업을 계획 중이다.

또, 현재 해당 시 · 군 주관으로 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템플스테이 상품에다 사찰의 특성을 살린 색다른 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주변 관광자원, 타 종교성지 및 역사문화체험 상품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템플스테이 체험과 차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자, 본 사업 전반에 전문여행사 등을 적극 활용, 7개 사찰에 체험 관광객이 이용할 화장실, 세면장 등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2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밖에도 국문 및 영문의 템플스테이 홍보책자를 발간 · 배포해 충남도내 템플스테이 우수성을 알릴 계획도 세웠다.

충남도는 작년에 개관한 공주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과 함께 올 7월 준공예정인 부여 롯데콘도, 공주 숙박촌 및 8개 템플스테이 사찰을 잘 활용하면 이벤트 행사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도 황대욱 관광산업과장은 "2010년은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1) 등 23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세계 대백제전', '충남 민속 문화의 해', '보령머드축제' 등 200여개의 크고 작은 풍성한 행사, 축제(이벤트) 등이 펼쳐지는 해인만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다른 사업이 상호 연계하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감으로써 관광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는 마곡사, 수덕사, 갑사, 부석사, 영평사, 지장정사, 서광사, 광덕사 등 8개 사찰이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

17일, 대혜 스님 출판 기념회 봉행

1월 17일 성산회관에서 봉행된 대혜 스님의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혜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혜 스님(구미 원각사 주지)의 불교에세이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의 출판기념회가 1월 17일 구미 선산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조계종 각 교구 주지스님을 비롯해 지역유관 단체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대혜 스님은 법등 스님(도리사 주지)에게 책을 봉정하고 참석자들에게 군 법당과 교도소에 책을 보내기 위한 후원도 받았다.

또, 노래로 포교하는 도신 스님이 신촌블루스 출신 밴드 '색즉시공'과 함께 음성공양을 펼치며 출판기념회의 흥을 돋아 눈길을 끌었다.

대혜 스님이 펴낸 불교 에세이 <부처님은 영원한 동반자이시며>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발견한 스님의 체험적 불교관이 진솔하고 담담한 필치로 담겨 있다.

스님은 1987년 경주에 전국 최초의 불교문화원을 개원해 불교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직지사 포교국장과 선산 원각사 주지 등을 맡으며 어린이, 학생법회 등에 매진해왔다.

한편, 구미 원각사는 대혜 스님의 출판기념회에 이어 사찰 봉사단체인 '자비봉사회' 출범식을 갖고 매달 정기적인 어르신 무료 급식과 반찬 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예술문화공간 사찰 생겨

수덕사 미술관 3월 중 개관

조계종 교구본사로는 처음 예천 수덕사(주지 옹산)에 미술관이 들어서, 종교적 공간을 초월한 예술문화 공간으로서의 사찰을 선보인다.

수덕사 미술관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구택을 옛 전통과 현대적 미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140평 규모이다.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최근 "종교적 공간인 사찰을 대중 친화적인 예술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미술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미술을 통해 대중이 함께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덕사 관계자는 "3월 미술관 개관과 함께 경인년을 기념한 호랑이 그림전을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역경학과 신설 동방대 신입생 모집

동방불교대학(학장 영우)이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 승가학과 · 범패학과 · 역경학과(이상 2년제)와 불교미술학과(3년제)이다. 특히 역경학과는 한역불전의 올바른 번역과 이해를 통한 불교 교리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역경지도자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동방불교대학은 출 · 재가자 모두 수학이 가능하며, 입학원서는 2월 18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받는다. 인터넷(www.dongbang.org)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02)745-2030 조동섭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